

남구, 여름방학 35일간 아동 급식 지원사업 추진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여름방학 기간 관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급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여름방학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원활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 실태 조사를 완료했다”며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급식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급식 제공 대상은 기준소득 52% 이하의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

이들로, 관내에만 2,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는 여름방학 기간 원활한 급식 제공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급식 신청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이외에도 급식 신청을 받고 있다.

급식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름방학 급식은 아이들 선택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단체 급식, 도시락 배달을 통해 이뤄지며, 아이들에게는 1인당 하루 8,000원의 급식비가 제공된다.

상당수 아이는 일반음식점 2,199곳에서 급식카드를 통해 끼니를 해결하며, 관내 지역아동센터 48곳에서 단체 급식을 하는 아이들도 68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락 배달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50여명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안전한 급식 및

간식 제공을 위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48곳과 다함께 돌봄센터 4곳, 도시락 제공기관 1곳을 대상으로 급식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중이다.

또 현장 방문 및 민원신고 시스템 확인 등을 통해 급식카드 가맹점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급식 부적합 업소인 유흥음식점과 주점, 고급 음식점, 카페 등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가 있어 선별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걸러내기 위해서다. /정희대 기자

북구, 청년이 청년에게 ‘청년학교’ 운영 지역 청년들에게 강의 경험, 배움의 기회 제공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내달부터 북구청년센터에서 강사와 수강생이 모두 청년으로 구성된 소규모 교육 강좌인 ‘청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학교는 지역 청년들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경험이 부족한 청년 강사에게는 강의 경력을 쌓는 기회를, 기술교육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무료 배움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에 북구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영상편집, 3D모델링, 웹디자인, 블로그 운영, SNS 활용 등 청년 강사가 직접 기획한 8개 강좌 중 수강인원 등 개설 조건을 충족하는 7개 강좌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강좌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2시간씩 총 5차시로 운영되고 이론과 실습을 통한 맞춤형 강의가 진행된다.

수강 대상은 북구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하는 청년으로 1인당 최대 3개 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30일까지 북구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강의 계획서를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일자리정책과(062-410-6568)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청년학교 강좌가 열정과 재능은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 강사와 배움을 원하는 청년들간 서로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성장과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올해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안정, 재충전, 취·창업, 참여·금융, 결혼·출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섭 기자

광산구, 농업재해 대책 시행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여름철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업분야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도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생명농업과장 총괄하에 4개 팀으로 구성, 10월15일까지 운영한다.

상황실은 평시에 기상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재해취약지 사전점검을 실시해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노후한 농업시설물 철거 또는 보강한다.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일선 동 행정복지센터, 농민, 농협과 공조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재해발생 시 분야별로 팀을 현지에 보내 피해 상황 파악과 응급복구를 추진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광산구는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후 대책보다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농업인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조기경보 체계를 정비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 비상 대응 역량 강화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동남을 지역위원회(의장 이병훈)와 올해 첫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을 논의하며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동구청 제공

동구-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동남을 지역위원회(의장 이병훈)와 올해 첫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을 논의하며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병훈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동남을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이뤄졌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상화, 도시재생, 인문도시 등 주요 정책들이 이루어져 동구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면서 “그럼에도 구도심의 지역적 여건상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상시 따뜻한 마음으로 살펴달라”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당정이 지역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 온 결과, 동구의 가장 큰 변화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서구, 미래혁신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광주 서구 미래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김이강, 김재철)가 최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미래혁신위원회는 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홍보 필요 ▲서빛마루 문예회관 성공적 운영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는 차원의 주변환경 조성 등 고려 ▲글자를 읽지 못하는 분들, 문자가 길고 장황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므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난 문자 발송 이미지화 ▲현재 무더위쉼터는 경로당에 집중돼 있어, 일반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확대 필요 등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위원회는 하반기 회의에서 내년 신규시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서구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안건을 발굴하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서구는 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취임 후 1년간 ‘함께서구 우뚝서구’ 구현을 위한 기틀을 다졌고, 이제 민선8기 구정 철학을 주민들 곁에서, 민생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펼쳐 생활정부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며 “최종 목표는 ‘주민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미래혁신위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구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미래혁신위원회는 구정 혁신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모아 서구에 정책권고를 하고, 구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발굴 등 민·관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기영 기자